

## CHOI Kwangho

최광호

### Our Modern History, June 25th through Stamps: A Letter for the deceased who were commended

I wonder why June 25th is not a national holiday. National holidays are for people to remember and commemorate the significance of that day. Considering that even Christmas and Buddha's Birthday are holidays, June 25th is not given enough attention. I feel saddened by the fact that the Hangeul (Korean Character) Day is not a holiday, or a national holiday.

Has any race seen as much bloodshed come from such extreme ideological differences? Don't we have to keep reminding ourselves so that this kind of tragedy will never occur again?

In order for us to not forget the meaning of these sacrifices, I have reexamined the values that are represented through these stamps. Reflecting on those days through photography, I have attempted to reinterpret these historical events.

### 우표로 쓰는 우리 현대사 6.25: 명령으로 죽은 사람들에게 쓰는 편지

6.25는 왜 국경일이 아닌가?  
국경일은 국민 모두가 기념하며 기억하는 날이다. 그런데 6.25 사변일은 공휴일도 아니다. 성탄절, 석가탄신일은 공휴일이면서 왜 6.25는 그저 의미 없이 지나야 하는가. 한글날도 아무 일 없이 지나가는 나라가 지금의 대한민국이다.

진실로 한 민족이 서로 다른 이념의 문제로 이만큼 피 흘린 적이 있는가? 그것을 교훈 삼아 다시는 그러지 말기를 기억하며 기념해야 하지 않을까?

역사 속에 축하해야만 할 일이 있는 것은 아니다. 기념 역시 그렇다. 국가를 위해 죽음으로 피 흘림의 가치를 다시금 생각하기 위해 나는 지나간 기념우표로 그것의 가치를 다시금 생각하며 허공에 지금의 현실을 사진으로 편지 쓴다. 사진으로 기억하는 그 날, 우리 현대사를 사진으로 해석하는 방법이다.









